



VIEW를 통해 꿈꾸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이하 VIEW)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다보니 이제는 제가 언제 유학을 갔다 왔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히 오래전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VIEW에서의 유학 경험들을 지면을 통해 나눔으로 VIEW를 소개하고, 더불어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눔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목회적 적용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정일목사
총신대신대원(M.Div),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졸업(M.A.)
현재 강남교회 부목사로 사역중

VIEW와의 만남

목사안수를 받은 직후인 2004년 12월, 저와 온가족은 이민가방 9개를 챙겨서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하여 타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고,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은행계좌를 열고, 전화와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의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초기 정착의 과정은 처음 도착한 나그네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을 미리 경험한 VIEW 원우들이 공항 픽업에서부터 정착의 전과정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들도 처음에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고, 이제는 그 받은 섬김을 다른 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캐나다 생활에 적응한 다음에는 다른 가정의 정착을 돕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교실에서의 기독교세계관 이론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하구요. 유학을 통해 누린 많은 혜택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섬김과 교제의 장이 된 VIEW 공동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VIEW 원우회가 아니라 VIEW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교제가 원우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우들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VFM (VIEW Fellowship Meeting)은 VIEW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VIEW 가족들이 VIEW 국제센터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매주 새로운 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강의를 듣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VFM은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씨리와 랭리, 아보츠포드, 칠리악, 코퀴틀람등 밴쿠버에 지역별로 모여서는 VIEW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섬기며 유학생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세계관 공부

VIEW는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던 DEW(기독교학술동역회, 현재는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통합)에 의해 밴쿠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1999년 7월,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과정(MACS)을 개설하였고, 2002년 7월부터는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두 학위과정 모두 기독교 역사상 종합대학에서 수여하는 첫 세계관 대학원 학위입니다(자세한 학교안내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www.view.edu).

VIEW는 학교 이름에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정도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가정, 과학/기술, 창조론, 환경, 직업, 타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신앙과 삶의 이원론을 타파하고, 복음의 통전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한 학기 3학점 3과목씩~4과목씩 4~5학기정도면 신대원 출신자들은 M.A과정을 마칠 수 있고, 2~3학기 정도면 디플로마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받는 방식이 아니라 집중강의 방식(Intensive Course)으로 진행됩니다. 강의가 일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수업방식은 강의 전 과제와 강의 중 과제, 강의 후 40일안에 써야하는 텀 페이퍼까지 상당한 분량의 과제와 학업성취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VIEW과정이 ATS(북미주신학교협의회)가 학위를 인정하는 북미주 최고의 프로그램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학기 강의가 마치면 VIEW에만 있는 전통인 텀 페이퍼 데이 행사를 합니다. 각자가 작성한 페이퍼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한 학기 배운 것들을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VIEW에서 공부하며 누린 혜택 가운데 하나는 밴쿠버라는 도시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신학대학이나 지역교회에서 개최하는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 북미주의 훌륭한 교수들의 탁월한 강의들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유학하는 기간에 폴 스티븐스, 브라이언 왈쉬, 오스 기니스, 브루스 디마레스트, 마이클 고힌 등의 강의를 직접 학교를 비롯한 밴쿠버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유학생활의 큰 소득이지만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빼 놓을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모자이크에 비유되는 캐나다 속에서 다민족이 함께 살며 그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는 저의 고정화된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는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적 목회를 꿈꾸며

2년 6개월여의 VIEW에서의 유학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과 제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세계관적 목회입니다. 목회보다 기독교 세계관적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그게 기독교세계관적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세계관적 목회가 지향하는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천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체적, 통전적(holistic) 복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총체적 복음은 복음전도와 사회적책임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이원론과 혼합주의의 타파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의 일과 일상에서의 영역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세속의 일로 잘못 구분하는 이원론적 태도를 교정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들의 전 삶을 통해 영적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성자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로 돌아왔지만 부목사로서 당장 목회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적지만 지금까지 목회의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연속 주제설교를 해 보기도 하고, 직업과 소명, 생명윤리, 재물관 등과 같은 주제들을 설교로 풀어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기독교세계관 학교를 여는 일입니다. 혼자 꿈만 꾸고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의 제안과 지원으로 지난 봄부터 11주 과정의 기독교세계관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봄에 약 100여명, 가을 학기에 또 1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2시간 30분가량 강의를 듣고 조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 봄 학기부터는 외부에도 학교를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세계관포럼을 개최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초기부터 학자중심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에 접목하길 원하는 목회자들간의 연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매년 1~2회



